

# 인도네시아 시위 전국 확산, 최소 10명 사망

## 국회의원 월 3,000불 주거수당이 도화선, 강경 진압 수백 명 구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경찰 폭력, 의회 불신을 둘러싼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카르타를 비롯해 반둥, 욕야카르타, 마카사르, 수라바야, 메단 등 주요 도시에서 검은 연기와 최루탄 잔해가 남아 시위의 격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미성년 학생들이 체포됐으며, 활동가들은 임의 구금과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시위의 직접적 도화선은 의회의 특권적 주거 보장 정책과 아흐마드 사흐로니 의원의 모욕적 발언이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580명 국회의원은 매달 5,000만 루피아(약 3,000달러)에 달하는 주거수당을 받고 있었다. 이는 자카르타 최저임금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은 물가와 실업률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상식 밖의 특권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 제3위원회 부의장이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사흐로니는 결국 해임됐지만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후 자카르타에서는 경찰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분노가 격화됐다. 평화적 시위는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폭력 사태로 번졌고, 인권 유린 의혹이 불거졌다.

### ■ 미성년자 구금과 학대 의혹



▲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리에서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AFP

자카르타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미성년자 300여 명을 구금했다. 그러나 부모나 변호인 접근을 제한해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BH 자카르타 변호인단은 몇몇 학생들이 멧과 상처를 입은 채 이동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의 위르야 아디웨나 부국장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폭력적 관행이 수하르토 정권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책임 회피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1998년 민주화 이후에도 구조적 면책이 유지돼 경찰은 시위를 억압하고 활동가를 침묵시키며 기득권을 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호주 머독대학교 정치안보학과 이안 윌슨 교수도 "경찰은 법과 질서의 중립적 기관이라기보다 정부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행위자"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22년 동자바주 칸주루한 참사(최루탄 사용으로 135명 사망) 이후에도 경찰이 여전히 밀집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니사 유다 연구조정관은 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SNS 비판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낸 청년들의 계정이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의적 낙인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다.

### ■ 대화 아닌 억압 선택한 정부

아디웨나는 정부가 시위를 안보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잉 진압과 감시, 반대 의견의 범죄화를 정당화하며 시위의 정치적 뿌리인 부패, 불평등, 책임 부재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는 "억압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시위대를 반역자와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추가 탄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윌슨 교수는 "수비안토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선택해 왔으며, 대형 국책 사업의 이해관계로 얽힌 연정 구조상 개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독일 자발적 군 복무 도입

## 병력 26만명 목표, 징병도 고려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각에서 통과시켰다. 국방부가 제안한 이번 법안은 만 18세 이상 청년들이 6개월간 단기 복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연간 모집 목표도 제시됐다. 2026년 2만 명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3만 8,000명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의무복무제 재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 때문에 분데스베어(독일 연방군)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현재 약 18만 명인 현역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늘려 NATO의 새로운 병력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모집 활동을 확대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신규 입대자는 1만 3,700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급증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 아프간 강진, 2,20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정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잘랄라바드 동쪽 약 17마일 지역을 진앙으로 한 규모 6.0의 강진은 지난 달 31일 밤 11시 47분께 발생했으며, 최소 3,600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잘랄라바드 북동쪽 20마일 지점에서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강진 이후에도 규모 5.2, 4.7,

4.6의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관리 사 무하마드에 따르면 일요일 발생한 지진으로 쿤드 지역에 서만 약 8,000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사망자는 대부분 쿠나르 주에서 발생했으며, 일부는 낭가르하르 주에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으로 최소 1만 2,000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Kyung Sook Yu, D.D.S

#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크라운  
(PFM)  
\$65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800부터

Free  
임플란트 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Blvd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